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

대산농촌상 제정의 뜻

대산농촌상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귀감으로 삼아
복지농촌 건설과 인류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 제정한 상입니다.

농업경영 부문, 농촌발전 부문, 농업공직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탁월한 업적을 세운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지난 34년간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식순

개식 사회

인사말 김기영 대신농촌재단 이사장

심사보고 박은우 심사위원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시상 공적영상 | 시상 | 수상소감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수상자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수상자

농업공직 부문 김동관 수상자

축하공연 팝페라그룹 볼라레

폐식 사회

축하연

일시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5시

장소 엘타워 5층 오르체홀

사회 박지민 아나운서

인사말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대산농촌상 서른네 번째 주인공인 세 분의 수상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가족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대산농촌상의 의미와 가치에 걸맞은 훌륭한 후보자를 발굴해주신 추천인 여러분, 공정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열여섯 분의 심사위원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를 넘어 '지구가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올여름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극한 호우와 폭염을 겪으며 그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기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상시화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랜 시간 굳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한길을 걸어오신 수상자분들의 삶과 그 궤적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올해 수상자님들의 공적을 살피며, 눈에 보이는 성과의 크기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다'는 믿음으로 작은 것까지 보듬으며 외길을 걸어오신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수상자님**, 작은 지역의 변화를 통해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을 보여주신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수상자님**, 남들이 주목하지 않던 발작물 연구에 매진해 농민에게 희망을 북돋아주신 **농업공직 부문 김동관 수상자님**, 세 분의 고귀한 성취와 그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산농촌재단은 1991년,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 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4년간 재단은 농업과 농촌, 사회의 근간을 견고히 세우고 연결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산 선생의 **농**에 대한 숭고한 철학은 농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었고, 다시 일어설 힘이, 그리고 뿌듯한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34년간 재단과 우리 농업, 농촌을 변함없이 후원하고 성원해주신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농업인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의 가치를 전하며,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

재단은 올해 향후 5년의 방향과 핵심 목적을 담은 ‘비전 2030’을 수립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 협력과 연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대산농촌재단이 펼치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길에 함께해주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한 신념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산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심사보고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선정 경과

대산농촌상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등 3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탁월한 공적을 이룬 인사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농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수상자 선정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후보자 추천을 공고했으며,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등 3개 부문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부문에서 부문별로 현장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대산농촌상 제정의 뜻과 취지에 따라 공적의 탁월성과 가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현장 심사 대상자 3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부문 심사위원과 실무진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후보자의 공적 사실 확인과 사회적 가치, 주변 평가 검증 등을 현장에서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학계와 언론, 현장 전문가 등 사회 저명인사 6인으로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심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공적서와 부문별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제34회 대산농촌상 농업경영 부문은 친환경 축산과 목장형 유가공을 선도하며 지역 사회 상생에 기여한 **양혜숙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대표이사**, 농촌발전 부문은 풀뿌리언론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농촌공동체 성장을 이끈 **황민호 (사)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농업공직 부문은 녹두와 동부의 일시수확형 품종 개발과 기계화로 발작물 국산화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이끈 **김동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산농촌재단 이사회는 본심사위원회 제청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오늘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상자 세 분의 걸음은 지역과 현장을 밝히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잇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공적을 기리며, 이상으로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 농업경영 부문 | **양혜숙**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대표이사

| 농촌발전 부문 | **황민호** (사)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 농업공직 부문 | **김동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대표이사

- 1959년생
- 1983~현재 | 아침미소목장(구 농원목장) 공동 운영
- 2011~현재 | 농업회사법인(주) 아침미소 대표이사

친환경 축산과 지역 상생으로 농업의 가치를 드높이다

양혜숙 수상자는 40여 년간 낙농업에 종사하며,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낙농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모델을 확립했다.

자유방목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 글로벌 품질 인증

양혜숙 수상자는 제주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내 26만㎡ 규모의 목장에서 자유방목과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다. 젖소 한 마리당 약 157㎡ **동물복지 인증 기준의 약 9배**의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유기농 풀을 생산해 먹이고, 무항생제와 저탄소 축산 방식으로 친환경 낙농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국내 젖소 목장 중 유일하게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외 다수의 위생과 품질 관련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신념 아래 원유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경영해 온 결과다.

농촌융복합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2000년대 초 유제품 수입 개방과 원유 쿼터제로 낙농업이 위기에 처하자, 제주도 최초로 목장형 유가공을 시작해 변화를 선도했다. 2006년 '아침미소' 브랜드로 수제 요구르트를 출시한 이후, 12종의 다양한 유가공 제품을 개발, 상품화하며 R&D에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특허 5건을 비롯해 국내외 상표 등록 34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고, 연간 원유 242t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판매망은 온·오프라인과 수출로 다각화하여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확보했다.

2008년 낙농체험목장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간 3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많은 소비자가 농업·농촌을 직접 만나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하도록 돕고 있다. 아침미소목장은 제품 개발, 물류, 마케팅 등 인력을 확충하여 20여 명의 청년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목장'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또한, 양혜숙 수상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이 순간이 한없이 벅차고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농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산농촌상을 받게 된 것은 제 삶의 큰 영광이자, 앞으로의 길에 더 큰 책임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대부분은 목장에서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풀을 베어 소에게 먹이고, 저녁이면 우유를 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0여 년 세월 동안 농업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고, 때로는 기쁨이었으며, 때로는 큰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해준 것은 소와 땅, 그리고 곁에서 함께 땀 흘린 가족과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를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소를 단순히 생산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동반자로 여기며, 자유방목과 친환경 축산을 고집했습니다.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안에서 소들에게 넓은 초지를 내어주고, 무항생제와 저탄소 방식으로 사육한 결과, 국내 젖소 목장 중 유일하게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에게 넓은 공간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낙농을 실천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제품 수입 개방과 원유 할당제로 낙농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저는 목장형 유가공이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했습니다. 2006년 '아침미소'라는 이름으로 첫 요구르트를 내놓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릭요거트, 카이막 등 유제품뿐만 아니라 과자, 베이커리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하였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목장이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가족이 목장을 찾아 소와 함께 뛰놀고, 초원의 바람을 느끼며 농촌의 삶을 체험합니다. 아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어른들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아침미소목장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청년들이 생산과 제품 개발, 마케팅, 체험,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농업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켜보며, 농업이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대임을 다시 느낍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해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제 곁을 지켜준 가족과 동료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많은 분들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도전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수상은 저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침미소목장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이 꿈꾸며 일할 수 있는 농촌,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신 신용호 선생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철학을 따라 농업의 본질을 지켜가며, 다가올 세대에도 희망을 전하는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사)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 1976년생
- 2002~2012, 2015~현재 | 옥천신문 기자, 대표
- 2022~현재 | (사)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이사장

풀뿌리저널리즘으로 농촌공동체의 성장을 이끈다

황민호 수상자는 20여 년간 충북 옥천에서 풀뿌리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복합문화공간, 공동체밥상, 풀뿌리저널리즘스쿨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실험을 펼쳐 인구 유입과 정착, 자립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저널리즘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자치 실현

2006년 옥천군 청산면으로 이주하여 지역신문 기자 활동과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병행했다. 지역 내 부조리, 부패, 노동자 부당해고와 태양광 및 골프장 난개발 등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하며, 실질적 변화와 시민사회의 의식 성장에 기여했다. 옥천신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보도를 통해 주요 인프라 구축과 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민호 수상자는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며, 독립언론으로서 주민 삶에 직접 연결된 미디어 역할을 강화해왔다. 2017년부터는 (주)고래실, 월간 옥이네, 옥천FM공동체라디오, 주간영동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인큐베이팅하여 세대와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과 협력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2022년에는 청산면에 복합문화공간 '청산별곡'을 조성해 실버카페, 청소년 공부방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지역사회 돌봄과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청산공동체밥상사업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상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31곳에 반찬을 매주 배달하며 자원봉사와 연계한 돌봄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다. 풀뿌리저널리즘스쿨을 운영하여 매년 20여 명의 청년언론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및 전국 미디어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5개의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황민호 수상자는 풀뿌리저널리즘 실천과 농촌공동체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백척간두의 농촌, 그 가운데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대산농촌상 수상 소식을 듣고, 그간 겪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찌감치 지켜보며 기사로만 써왔던 일들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정하고, 만났던 사람들과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나간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변방으로 나아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시간, 속절없이 무너지고도 소중한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나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결코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꿈을 지탱해 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눠준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요된 지역소멸 앞에, 막대한 예산과 개발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단단해진 지역공동체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들의 정치를 믿었고, 읍면자치의 코뮌Commune을 상상했습니다. 저널리즘으로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알고리즘을 혁파하고, 삶의 공동체를 복원하며, 이상적인 지역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줄과 날줄을 이으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그물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옥천신문'과 연을 맺었을 때부터 참된 지역언론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고민하며 길을 개척해 온 옥천신문 창간인 오한홍 대표님, 20대 후반부터 고향에 내려와 농민운동과 지역운동에 천착하며 여전히 창창한 활동가의 눈빛을 잃지



않는 옥천살림 주교종 대표님. 두 분은 제게 지역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또, 영리하게 득실을 따지는 방법을 모르는 저의 곁에서 늘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고래실 이범석 대표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옥천신문을 지탱해 온 동료 기자들은, 저널리즘이 어떻게 지역에 스며들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폴뿌리저널리즘스쿨’과 ‘주간영동’을 응원해 주신 영동의 주민들은 옥천신문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청산면에서 주민과 함께한 활동들은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옥천신문 식구들, 주간영동과 함께 해준 친구들, 청산면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산농촌상 수상의 영예를 안고, 우리나라 농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폴뿌리민주주의를 지키는 로컬저널리즘을 전파하고 싶고, 읍면자치의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청년언론인을 더 많이 양성하고 싶고, 자치 활동가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며 저변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대산농촌상은 저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와 결합한 세미콜론(;)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엮여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저를 지탱해 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34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농업공직 부문

김동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 1967년생
- 1992~1994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 1994~현재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농업연구관

농민에게 필요한 연구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다

김동관 수상자는 30여 년간 농촌 현실과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용 중심의 연구를 꾸준히 실천해 온 실무형 공직자로, 농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녹두·동부 일시수확형 품종 개발과 기계화로 발작물 생산 혁신

녹두와 동부는 콩과 작물에 속하는 전통적인 소규모 발작물이다. 그러나 두 작물은 여러 번 개화·성숙할 뿐만 아니라, 익은 꼬투리가 쉽게 벌어져 수확과 탈곡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작업이 필요해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작물이었다. 농민들은 생력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주력 곡물에 비해 연구 투자가 부족했고 기술적 한계로 여러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김동관 수상자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국산 녹두의 수요와 영광모시잎송편의 핵심 원료인 동부의 국산화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해 특성을 검토한 뒤, 덩굴성·무한형의 한계를 극복한 직립형 일시수확 개체를 선발·교배해 녹두^{다현}, 산포와 동부^{옥당}, 선현 품종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가 어려웠던 작물에서 범용 콤바인으로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한 재배작물로 전환되어 노동력이 90% 이상 절감되고, 재배면적 확대와 소득 증대, 작물 인지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현장 밀착형 연구로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

그는 육성 품종에 맞춘 기계화 기술 패키지를 개발·보급하여 녹두와 동부의 국산화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녹두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통해 향산화, 해독 등에 효능이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동부는 2017년 영광모시잎송편의 지리적표시제 등록^{104호}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식품산업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동관 수상자는 농민과 현장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꾸준히 힘쓰며, 비주류·소규모 작물의 잠재력과 가치를 끌어올렸다. 또한, 콩, 고구마 등 발작물 육종 시스템 체계화와 후배 연구자 육성, 활발한 기술 이전을 통해 농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영예로 꼽히는 대산농촌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늘 곁에서 함께 연구의 길을 걸어준 동료 연구자들, 현장에서 응원해 주신 농업인들,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며 언제나 힘이 되어준 가족 덕분이라 믿습니다.

공직 초반 8년간 화훼와 과수를 연구하다가, 2000년부터 녹두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진했습니다. 초기에는 녹두의 해독 활성 등 기능성을 밝히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이전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쉽게도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한계를 절감한 저는 다시 생산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고, 국내외 기술을 두루 검토한 끝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던 ‘녹두 콤바인 수확’ 기술 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벼와 콩처럼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 있는 녹두 품종 **다현, 산포** 등과 파종에서 수확까지 아우르는 완전 기계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3~4차례 인력 수확으로 0.1ha 재배도 벅찼던 녹두가 이제는 10ha 이상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노동 강도를 크게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처음 소개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농업인과 공직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 현장을 누빌 수 있었고, 제가 개발한 품종과 재배 기술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수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농업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공동체의 결실임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2010년에는 영광군으로부터 영광모시잎송편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상업적 재배가 가능한 동부 품종 개발을 요청받았습니다. 동부는 키가 3m 이상 자라고 덩굴성으로 지주 설치가 필수이며, 꽃과 꼬투리가 순차적으로 달려 수시로 인력 수확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라 도전 자체가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산 가공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유전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검정 및 선발하고, 수많은 조합을 교배해 육성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키가 50cm 이하로 작고 쓰러짐에 강하며, 일시 개화성과 성숙성이 우수한 직립 반유한형 품종 옥당, 선현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기계화 재배법을 확립해 현장에 보급했고, 7년 만에 영광모시잎송편은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업인, 송편 제조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소중한 결실이자 지역농업 발전의 상징적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대산농촌상의 제정 취지를 깊이 새기며, 후배 연구자들이 현장 실용화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과분한 상을 주시고 농업과 농촌 발전, 그리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대산농촌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

본심사위원

-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
- 김창길**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원장
-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박은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양승룡**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원혜덕** 평화나무농장 대표
- 윤형주**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부문 심사위원

농업경영 부문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영
농업법인 도담 대표이사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농촌발전 부문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이사장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부대표

농업공직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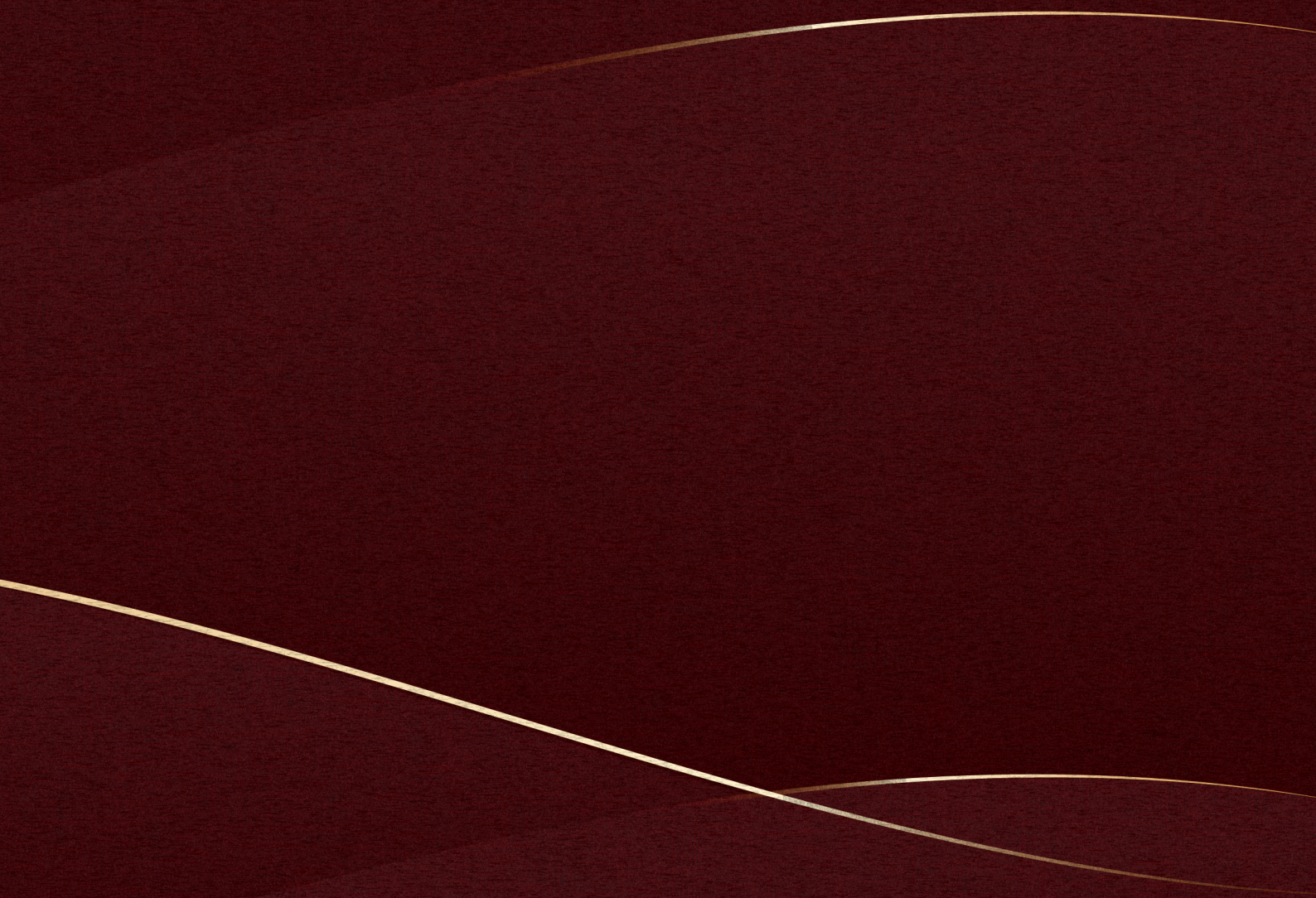
박광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최상희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가나다 순

대산농촌재단



창립자

大山 신용호 | 1917~2003

‘한국 농업의 별’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15)



대산 신용호 선생은 1958년 교보생명을 창립하고, 1991년 우리나라 민간 최초의 농업·농촌 지원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을 세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한평생 보험 외길을 걸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신용호 선생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철학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선구자적 기업인입니다. 대산 신용호 선생은 2015년, ‘광복 70년, 농림업 70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한국 농업의 별’ 13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창립의 뜻

대산농촌재단은 1991년 세계화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농촌 지원 공익재단입니다. 대산농촌재단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이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드높이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립이념

첨단농업
기술진흥

농업구조개선

복지농촌건설

인류복지증진

비전 2030

농農의 가치를 전하며,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

핵심목적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핵심가치



공익성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함



투명성

투명하고 공정하게
목적사업을 수행함



소통과 협력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협력함

추진사업



농민의 자긍심 고취

대산농촌상 시상 대산농촌상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농민의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농업연구 지원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연구를 지원해 농업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대산농업연수 세계 농업과 농촌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연수를 시행해 농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한국 농업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

차세대 농업인재 양성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선발해 체계적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으로 농업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대산농촌재단은 1991년부터 농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가족사랑 농촌체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즐거운 활동과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명의 중요성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닌 가치를 공감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청춘맛공감 청년들이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에 '공감'하도록 합니다.

대지의 밥상 '대산가족이 차린 지혜로운 밥상'. 정직한 땅^{大地}에서 건강하게 자란 농산물로 차린 밥상과 농부의 철학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농촌 삶의 질과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농하우 '농사 고수'의 유용한 농업 기술, 농촌 정보를 담은 영상 <농사부>를 제작하여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유합니다.

*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youtube.com/대산농촌재단

계간 <대산농촌> 발간 국내외 농업·농촌 이슈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현장의 생동감을 전하는 다채로운 내용을 담습니다. 또한 웹진으로 발행하여 다양한 독자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전합니다.

대산농촌포럼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지속 가능한 농^農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대산농촌상 상패에 담은 뜻

대산농촌상 상패는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을 창조의 상징인 ‘손’에 담았습니다.

‘두 손’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가는 **농민**의 중요성을,
‘새싹’은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농업**의 가치를,
‘강철’ 소재는 농민과 농업을 포용하는 변치 않는 삶의 근원인
농촌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패를 디자인한 윤호섭 교수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이자,
환경 공해를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린 디자이너’로
교육과 환경, 디자인과 환경을 접목해 자연의 메시지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제35회(2026년도) 대산농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시상 부문

농업경영	합리적인 농업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의 경작 또는 재배를 주요 공적으로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농업인	상패 상금 5,000만 원
농촌발전	농민의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혁신적 활동, 농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농업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	상패 상금 5,000만 원
농정지원*	정책, 제도, 기술, 행정, 교육 등 농업 농촌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가치 실현에 헌신한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및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상패 상금 2,000만 원

* 2026년부터 농업공직 부문이 폐지되고, 농정지원 부문이 신설되어 대상 범위가 공공 영역에서 공적을 쌓은 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후보자 추천

구비 서류 추천서 및 공적서(재단 소정 양식)

제출 방법 이메일(dsa@dsa.or.kr)

※ 추천서 양식 내려받기 등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www.dsa.or.kr) 참조

접수 기한

2026년 3월 31일(화)

농農의 가치를 전하며,
세상을 연결합니다

 KYOBŌ 대산농촌재단